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76

1 국제교류원 칼럼

태평양상에 빛나는 짙은 녹색의 보석: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후편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2 지사 관련 새소식

영국의 자치체 간부가 방문하였습니다(1월 17일)

대만과의 교류

- 대만의 고급 슈퍼마켓 「위마오우(裕毛屋)」의 세(謝) 사장이 방문하였습니다
(1월 16일)
- 대만에서 톱 세일즈를 하였습니다(1월 30일)

3 최신 정보

가고시마현의 새 PR 캐치프레이즈가 결정되었습니다!

4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다다모토(忠元) 공원 (이사(伊佐)시)

- 태평양상에 빛나는 짙은 녹색의 보석: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후편●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5) 후쿠기(복나무, *Garcinia subelliptica*) 가로수 · 미야코자키(宮古崎)

2일 차 아침, 저는 기대에 부풀어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선 후쿠기 가로수를 보기 위해 구니나오(国直) 해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구니나오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절경의 해변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즐겼으나, 이곳 주민들은 해변을 광장처럼 이용하며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즐기는 듯하였습니다. 바다거북의 산란지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구니나오 해변



류큐 문화의 자취가 깊게 남아 있었으며, SNS 사진 명소도 많았습니다!

후쿠기 가로수는 해안가에 자랍니다. 후쿠기 가로수는 뾰뾰하게 모여 자라도 성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줄지어 심으면 살아 있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방풍과 방화를 목적으로 심었으나 지금은 웨딩 사진을 비롯한 사진 촬영의 명소로 더욱 유명합니다.



후쿠기 가로수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후쿠기 울타리를 크리스마스 전구로 장식한 「후쿠기 나이트」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후쿠기 가로수를 잠깐 둘러본 다음, 북쪽으로 나 있는 산책로를 지나 미야코자키(宮古崎)에 도착했습니다. 1년 중 바람이 가장 세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탓에 어른의 허리 높이 정도까지 오는 류큐사사(류큐 열도 고유의 대나무)가 주변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평선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었죠. 정말 묘하면서도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류큐사사로 뒤덮여 있는 미야코자키

(6) 아미미오시마 세계유산센터



세계유산 인증서

다음으로 2022년 7월에 개관한 아미미오시마 세계유산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아미미오시마의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만들어진 종합거점시설로 흥미를 끌 만한 전시실과 뮤지엄 숲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미미오시마 세계유산센터



미로코 마치코 씨의 벽화

시설에 들어서면 아미미오시마에 살고 있는 그림책 작가 미로코 마치코 씨가 그린 박력 넘치는 벽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미미오시마의 생태계를 테마로 한 매력적인 일러스트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전시실 내에는 아미미오시마의 숲을 재현해 놓았는데 15분마다 조명의 색과 벽면에 비치는 영상이 바뀌어 낮의 숲과 밤의 숲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체험한 아마미오시마의 동식물들의 진화의 과정은 경이로움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전시실

벽면의 설명은 일본어와 영어로 되어 있으며 다언어 가이드 및 설명서도 배부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7) 구로시오(黒潮)의 숲 맹그로브 파크(카누 체험)

아마미오시마 세계유산센터의 바로 옆에는 일본에서 2 번째로 넓은 맹그로브 원생림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파크라는 시설에서는 그라운드 골프, 세그웨이 체험 등 맹그로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아마미오시마의 대표적인 관광 활동인 카누를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카누 선착장까지 걸어가서 구명조끼와 패들을 건네받은 후 가이드에게 기본적인 패들 짓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기초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저와 같은 초보자도 안심하고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누를 타고 맹그로브 터널로 향했습니다!



카누 체험



맹그로브 설명 중

조류의 영향을 받아 패들을 저을 필요가 거의 없어서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느긋이 풍경을 즐겼습니다. 맹그로브 터널에 도착한 후, 맹그로브의 종류와 맹그로브 파크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물에 대해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맹그로브 터널은 매우 불가사의하여 제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매우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맹그로브 터널의 분위기에 취해 좀 더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는데 계속해서 힘껏 패들을 젓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8) 산타로센(三太郎線) (아마미검은멧토끼 관찰)

2일 차 밤, 섬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아마미검은멧토끼라는 멸종 위기종을 관찰하기 위해 산타로센(三太郎線)을 지났습니다. 아마미검은멧토끼는 도로 한복판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 댓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마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체험이기에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저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6 마리 정도의 아마미검은멧토끼를 보았는데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다양한 야생 동물의 울음소리도 들었습니다.



산타로센에서 발견한 아마미검은멧토끼

이곳만의 독특한 생태계는 아마미오시마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이기도 하며, 이렇게 아마미의 생물 다양성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9) 도미타(富田) 주조장

3일 차 아침, 아마미검은멧토끼 관찰의 여운을 간직한 채 아마미의 대표 특산품인 흑당 소주를 만드는 도미타 주조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주조장에서는 「류구(龍宮)」와 「마라센(まらせん)」 등의 인기 흑당 소주를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견학 투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미의 주조장 중에서는 비교적 소규모로, 들어선 순간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영국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도미타 씨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영국인으로서 더욱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도미타 주조장 정면



도미타 주조장의 흑당 소주



영국과의 관계

도미타 씨의 견학 투어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이전에 방문한 고구마 소주 주조장과의 차별화된 투어에 즐거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소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술덧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는데, 아마미오시마의 기후는 본토에 비해 따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항아리의 밑둥만 묻는다고 합니다.



술덧이 들어 있는 항아리

이번 견학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흑당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산 흑당과 아마미산 흑당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 의외로 맛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도미타 씨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윈드 테이스트(Wind Taste)」, 즉 흑당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해풍을 맞고 자라면서 맛이 드는데 산지에 따라서 맞는 해풍의 정도가 달라 결국 흑당의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미타 주조장에서는 「류구(龍宮)」는 오키나와산 흑당으로 제조하는 한편, 「마라센(まーらん舟)」은 아마미산 흑당으로 제조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두 가지 모두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도미타 주조장에서 사용하는 오키나와산 흑당

마지막으로 흑당 소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 답변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딱히 없어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겨 주세요.」

저는 영국에서 주로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의 경우에는 마시는 방법과 와인 페어링 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미타 씨는 흑당 소주를 스트레이트, 미즈와리(물을 타서 묽게 함), 소다와리(탄산수를 타서 묽게 함) 등의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마실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도미타 씨의 설명은 깔끔한 맛의 흑당 소주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미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마라센(まーらん舟)」 한 병을 사서 최종 목적지로 향하였습니다.



「마라센」을 손에 들고 도미타 주조장을 뒤로하였습니다.

(10) 오시마쓰무기무라(大島紬村)

아마미에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직물로도 불리는 오시마쓰무기는 광택을 지닌 견직물로 아마미오시마의 방문객이라면 꼭 봐야 하는 특산품입니다!

쓰무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쓰고 문양(아마미에서 자생하는 소철을 모티브로 한 문양)으로 뒤덮인 간판 등 아마미오시마의 다양한 곳에서 오시마쓰무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는 오시마쓰무기무라를 추천합니다.

오시마쓰무기무라에 도착하니 정원의 아열대 식물들이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저는 아마미를 대표하는 루리카케스(어치)의 지저귀음을 들으며, 아마미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류큐왕나비를 관찰하면서 진흙 염색(도로조메) 체험과 견학 투어를 기다렸습니다.



오시마쓰무기무라의 아열대 식물정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진흙 염색 체험 공간으로 향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듣고 난 후, 진한 갈색의 배경에 흰색 꽃 문양을 염색하기 위해 손수건을 접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다 접은 후에는 샤린바이(다정큼나무)라는 식물로 만든 염료를 사용하여 세 번 염색했습니다. 손수건은 잠깐 동안만 염료에 담가 두었는데, 의외로 진한 붉은빛의 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흙밭으로 이동하여 부드러운 진흙 속에 손수건을 묻었습니다. 진흙 속의 철분이 샤린바이 염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과 반응하여 광택이 있는 독특한 초콜릿색을 냅니다. 손수건 진흙 염색 체험은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아마미만의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진흙 염색 체험 공간



손수건 접기에 집중!



샤린바이 염색



진흙 염색 중



완성!

염색한 손수건이 건조되고 있는 사이, 저는 쓰무기 제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쓰무기만의 섬세한 문양을 내기 위해 얼마만큼의 높은 기술력과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무기로 만든 기모노 등을 직접 손으로 만져 볼 기회도 있었는데, 직물의 가벼운 무게에 감탄하였습니다.



오시마쓰무기무라 견학 투어

마무리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미오시마를 만끽하였습니다. 루리카케스(어치), 아미검은멧토끼, 히카게헤고(나무고사리과의 여러해살이 양치식물) 등의 동식물과 아미의 시마우타(아미 군도에서 불리는 민요), 흑당 소주, 쓰무기 등의 전통... 아미만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아미오시마를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아미의 팬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사 관련 새소식 - The Governor's Movements

●영국의 자치체 간부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일반재단법인 자치체국제화협회 주최의 「해외자치체간부 교류협력세미나 2022」가 본 현에서 개최되어 참가자인 영국의 자치체 간부 등 12명이 시오타 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테마였던 본 현의 2050 탄소중립(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추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사는 「본 현은 사쓰마번 시대부터 영국과 교류가 있었으며, 현재는 런던 캠든구 및 맨체스터시와 우호 협정을 맺어 있다. 체류하시는 동안 본 현의 맛있는 먹거리와 자연, 온천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대만과의 교류●

- 대만의 고급 슈퍼마켓 「위마오우(裕毛屋)」의 셰(謝) 사장이 방문하였습니다(1 월 16 일)

지난 1 월 16 일, 대만의 고급 슈퍼마켓 「위마오우(裕毛屋)」의 셰(謝) 사장이 대만으로부터 가고시마 특산품 수출 확대에 관한 보고 및 대만 직항편의 재개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시오타 지사를 예방하였습니다.

셰(謝) 사장은 대만에서의 가고시마 특산품의 높은 인기를 전하며, 가고시마공항과 대만을 잇는 직항편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지사는 박람회 개최 등 가고시마현에 대한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대만 방문 시에도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 대만에서 톱 세일즈를 하였습니다(1 월 30 일)

지난 1 월 30 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운항이 중지되었던 가고시마 - 타이베이 선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대만의 차이나에어라인(중화항공) 본사를 방문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마미오시마 · 도쿠노시마」와 가고시마 흑우가 제 12 회 전국와규능력공진회에서 지난 대회에 이어 와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것에 대해 어필하며, 동 노선의 조기 취항 재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대만교류협회 타이베이사무소도 방문하여, 직항편의 운행 재개 및 대만과의 교류 촉진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였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조속한 국제정기노선의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현의 새 PR 캐치프레이즈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현은 3개의 세계 유산과 와규 챔피언의 타이틀을 거머쥔 가고시마 흑우를 비롯한 세계가 주목하는 먹거리와 우수한 특산품 등 역사와 문화, 매력적인 자원, 즉 수많은 「보물(宝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작년 12월에 책정한 「가고시마 PR 기본 전략」의 콘셉트 「움직이는 PR」에 입각하여 가고시마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손에 넣은 보물을 직접 체험해 보고, 또한 현민 여러분은 각 지역의 수많은 보물을 발견하고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클래식과 모던을 겸비한 로고타이프는 온고지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宝(보)」라는 글자에는 보물을 연상케 하는 반짝이는 포인트를 배치하여 가고시마에서 다양한 보물을 발견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고시마의 매력을 만나는 두근거림을 연출한 로고 디자인입니다.

南の宝[◆]箱
鹿児島

●다다모토(忠元) 공원 (이사(伊佐)시)●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다다모토 공원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내 약 2킬로미터의 길에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벚꽃 시즌에는 천 개의 등불이 수놓여 낮과 밤의 다른 표정의 벚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1990년에는 「일본 벚꽃 명소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주 소: 〒895-2506 이사시 오쿠치하라다(大口原田) 2484-193

전화번호: 0995-29-4113 (이사시청 이사 PR 과)

영 업 일: 연중 (예년 벚꽃 시즌: 3월 하순~4월 상순)

교 통 편: 규슈자동차도 구리노(栗野)IC에서 약 25분 / JR 신미나마타(新水俣)역에서 약 40분

주 차 장: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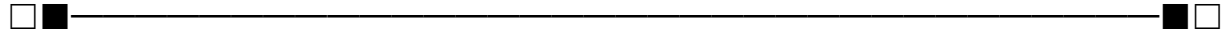


사진 제공: 공익사단법인 가고시마현 관광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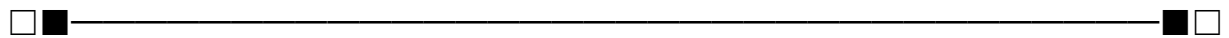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